

멸·치·풍·어

여수 지역 어획량 작년비 20% 늘어

상품가치 높은 작은 멸치 많아 소득 증대 기대

남해안의 멸치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멸치 풍어가 기대되고 있다.

여수지역 기선선인망협회에 따르면 최근 멸치잡이 어선 30척의 하루 멸치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70%가 중간 크기 이상의 멸치였으나, 올해에는 상품가치가 높은 작은 멸치

(소멸)가 대부분이어서 위판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멸치 어획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인 멸치의 분포 밀도가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해수산연구소도 지난 3월 초 실시한 자원조사에서 남해 중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멸치가 전

년도에 비해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멸치 풍어를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 멸치 분포밀도는 719.7kg/km²로 지난해의 609.3kg/km²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기선선인망협회 염성진 상무는 “올해는 소멸 위주의 어획량 증가로 큰 폭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해파리 떠의 잣은 출현 등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획량 증가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플라스틱 소각로 특혜 의혹

나주시, 미검증업체에 19억원 지원

성능 떨어져 준공조차 못하고 방치

나주시가 추진한 대형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잇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04년 국비 13억3천만 원, 시비 3억7천만 원, 자부담 2억 원 등 모두 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RPF(페플라스틱)으로 만든 고

도마에 오르면서 현재까지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또 사업자인 21세기영농법인은 공사 시작과 함께 시공사 측에 지급해야 할 2억 원의 자부담 금액을 내지 않았으며, 총 계약금액은 19억 원으로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17억 원만 지급키로 시공사와 이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공사가 마무리된 소각열 이용시설은 시험가동에서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업자 측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 기성금을 과

형 연료)연소 보일러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천면 '21세기영농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나주시는 보조금 집행과정에

서 사업자 측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 기성금을 과

감자 월동 재배단지

50㏊ 규모 조성키로

해남군 북일면 등 15곳에

해남군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감자 월동 재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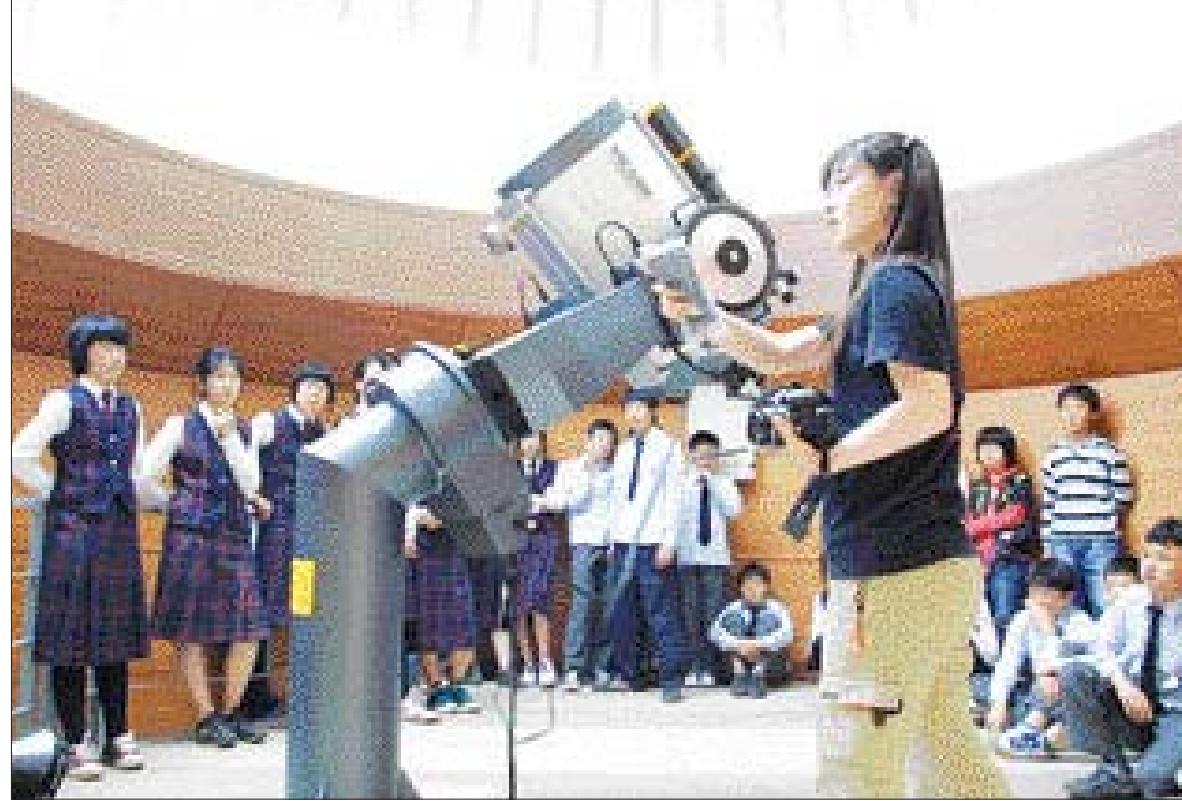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가을철 흙수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송지, 북일면 등 15곳에 50㏊ 규모의 감자 월동 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산이면 등 3곳에서 가을 감자를 노지상태에서 월동시키는 시험 재배에 성공하고 농민들을 상대로 기술교육과 토양 관리 교육을 마쳤다.

해남지역은 거울찰 기운이 따뜻해 가을에 감자를 캐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부지 포로 덮어 놓다가 12월 이후 출하하면 바로 감자를 캤 것처럼 신선도가 유지돼 일반 감자보다 10~20%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월동 감자재배가 확대될 경우 매년 과일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남 겨울 배추 재배면적을 줄이는데도 한 둑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박정우기자 jopark@



신비한 우주 관찰 체험

장흥군 양봉산 자리에 위치한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휴가철을 맞아 텁방객으로 불리고 있다. 천문과학관은 주간에도 태양표면의 흑점 관찰을 비롯해 천체투영실(동영상관)에서 다양한 우주 관찰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8일 오후 7시5분부터 9시30분까지 개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백도서 무단 낚시 무더기 적발

국가지정문화재로 일반인 상류이 제한된 백도에 들어가 낚시하던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20일 심모(31), 김모씨(37) 등 낚시어선 선장 2명과

윤 모씨(55) 등 낚시꾼 9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심씨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名勝) 제7호'인 여

수시 삼산면 백도에 배를 타고 들어

가 윤씨 등 7명을 상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자연훼손 방지와 어자원 보호를 위해 백도 인근 해역에 대

한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는

구속 수사를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을들이 20일 현재

백도에 무단 상륙한 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꾼 20명을 입건했다.

또 김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다른 낚시꾼 2명을 자신의 낚시어선에 태워 백도에 무단 하선시킨 혐의를, 윤씨 등 승객 9명은 백도에서 낚시로 어자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자연훼손 방지와 어자원 보호를 위해 백도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는 구속 수사를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을들이 20일 현재

백도에 무단 상륙한 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꾼 20명을 입건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예산 편성 군민 의견 듣습니다

영광군, 내달 14일까지

영광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앞서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영광군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도로 교통시설 확충 등의 투자 분야 가운데 우선 집중 투자 항목에 관한 군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yeonggwang.jeonnam.kr)를 통

해 다음달 14일 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도 받을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삼해상사(주)는 장흥읍 행원리 일대 4만 9천587㎡ 부지에 가공공장 6천612㎡, 국제 물류입찰장 8천265㎡를 준공,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장흥에 김 가공공장·물류센터

585억원 규모 내년 7월부터 가동

장흥에 대규모 김 가공공장과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박준영 지사, 박민호 장흥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술 삼해상사(주) 대표와 사와 585억 원 규모(외자 1천만 달러 포함)의 김 가공공장과 물류센터를



대풍작 고추 말리기

처서(處暑)를 사흘 앞둔 20일 보성군

보성을 주봉리 오리실 미을에서 고추

말리기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는 비 오는 기간이 짧고 일조량이 많아 고추가

풍작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녹차추출액을 이용해 친환경농법으로 재

배한 녹차 고추가 본격 출하돼 농가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성=안구일기자 gijah@

농·어촌 복합 체육관

고흥 도양에 짓는다

내년 상반기 완공

고흥 도양읍에 농·어촌 복합 체육관이 들어선다.

고흥군은 농어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13억 원을 들여 도양읍 응진리 체육공원에 실내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복합 체육관에는 배드민턴과 농구, 핸드볼 경기를 칠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군은 주민들의 체육관 이용 확대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관리와 운영 등을 체육단체에 맡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만여 m²의 체육공원 일대에 오는 2009년까지 계단식 관람석을 갖춘 축구전용구장 2면과 테니스장 등을 조성키로 했다. 군은 축구전용구장의 경우 각종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고려청자의 유혹

내달 8일부터 '분묘 출토 청자유물 특별전'

오는 9월 8일부터 한달간 강진 청자 박물관에서 '고려시대 분묘(墳墓) 출토 청자유물 특별전'이 열린다.

제 12회 강진 청자문화제와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립 광주박물관과 전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자유물 30점이 전시된다.

이 유물들은 무안, 고창 등 전라도 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청자들로 진안 수천리 출토 청자를 제외한

대부분 청자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번 전시회는 시신을 안치하기 전에 무덤 위치를 잡아 놓고 청자대접 안에 묵서(墨書)로 묘주(墓主) 이름과 날짜를 표기한 청자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강진 청자박물관은 특별전과 함께 9월 10일 '고려시대 분묘(墳墓) 출토유물에 대한 지역별 고찰'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광주 매곡동에서 출토된 청자 대접(大器)과 무안 청계면에서 출토된 청자유물들.

목포경찰서~터미널 도로 24일 개통

신도심~북항권 최단거리로 이어

목포 신도심과 북항권을 연결하는 목포경찰서~버스터미널 간 도로가 오는 24일 개통된다.

지난 2001년 12월 착공된 이 도로는 터널 760m를 포함해 총 연장 2.05km, 너비 30m로 하당 신도심과 북항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목포 최초의 양방향 터널로 시공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신도심과 북항권을 최단거리로 연결, 백년로에 접증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신·구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암행대교와 연결되는 등 미래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간선 도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 개통으로 지역 주민들의 최대 교통 현안이 해결되게 됐다"며

"목포대교 건설 등 교통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o@

칼라 피망 화려한 맛에 빠져볼까

<h3